

문화 경제학과 수사학: 클래머와 맥클로스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상 호**

논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클래머와 맥클로스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 경제학과 수사학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클래머는 가치판단과 관련된 문화와 경제학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그는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을 수용하면서 문화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두 가지 문화 개념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과 함께 자신의 비판대상과 정반대의 한계를 안게 되었다. 또한 그는 맥클로스키에게서 과학과 수사학의 조화라는 목표는 수용하지 않았으며 수사학의 의미도 다르게 수용했기 때문에, 그의 문화 경제학에서 수사학은 새로운 대안 이론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기보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드러내는 장치로서만 기능한다. 수사학의 수용이 그의 문화 경제학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안기게 된 셈이다.

핵심 주제어: 문화, 가치판단, 수사학, 클래머, 맥클로스키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0, B3, B4

투고 일자: 2011. 2. 25. 심사 및 수정 일자: 2011. 3. 23. 게재 확정 일자: 2011. 5. 16.

* 이 논문은 2010년도 제원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e-mail: lsh0919@kornet.net

I. 서론

문화와 경제의 관계는 경제학의 오랜 관심사에 속하지만, 체계적인 문화 경제학은 흔히 1960년대, 특히 보몰·보웬의 1966년 저작(Baumol and Bowen, 1966) 이후 등장했다고 평가된다(Towse, 2005, p. F263-264; Frey and Pommerehne, 1997, p. 3).¹⁾ 여기에는 이 시기에 선진국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이와 함께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로 문화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해졌다는 사실 또한 문화 경제학의 등장과 발전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된다(Throsby, 2004, pp. 8-9; Thrift, 2002, pp. 203-204).²⁾

체계적인 문화 경제학의 등장이 문화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학의 분석기법이나 시장경제 논리가 문화나 예술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³⁾ 그렇지만 문화 경제학 내부에는 경제학의 분석기법을 문화 영역에 거의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데, 클래머(Klamer)와 트로스비(Trrosby)가 대표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문화는 가치판단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그래서 문화와 경제(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 혹은 이질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무시하고 경제학의 분석기법을 문화 영역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문화의 중요한 특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것이거나, 문화적 가치는 있지만 경제적 가치는 없는 문화적 재화나 예술품이 간과되거나 배제된 것이기 쉽다.⁴⁾

1) 그렇지만 보몰·보웬의 1966년 저작은 이들의 1965년 논문(Baumol and Bowen, 1965)에서 이미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제시된 것이다.

2) 문화 경제학에서는 ‘cultural economics’이라는 말과 함께 ‘economics of arts’이라는 말도 종종 사용되지만(Towse, 2005, p. F263). 여기서는 용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 후자까지 ‘문화 경제학’으로 읊었다.

3) 문화 경제학자들은 종종 예술품 수요를 경제학의 ‘한계지불의사’로 설명하거나(Frey, 1994, p. 8), 조건부가치평가방법(contingent valuation)을 이용해서 문화적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도 한다(Cuccia, 2003).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경제학과 비슷한데, 여기에는 문화가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비시장 재화이자 공공재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Hutter, 1996, pp. 264-265).

4) 문화 경제학에 대해 종종 ‘지적 제국주의’(intellectual imperialism; Blaug, 1992, p. 13)나 ‘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클래머나 트로스비의 문화 경제학은 분명히 새로운 시도에 속한다. 더구나 이들처럼 가치판단의 문제를 중시할 경우, 문화 경제학은 부분적으로나마 경제학의 가치 중립성 기준에 대한 변화나 반성을 요구하는 영역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클래머는 맥클로스키(McCloskey)⁵⁾의 수사학적 접근을 수용하면서, 트로스비의 경우와 또 다른 문화 경제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맥클로스키는 경제학을 수사학적 구성물(construction)이자 계속되는 인류의 대화(conversation)의 일부로 정의하는데(박만섭, 2001, pp.120-121), 그 이면에는 가치판단의 다양성과 함께 경제학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놓여 있다.⁶⁾ 여기서 경제학은 가치중립적인 과학 영역에서 가치판단의 다양성을 내포하는 대화와 설득의 수사학 영역으로 전환되는데,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셈이다.

문화 경제학은 반드시 문화와 경제(학)의 이질성을 전제해야 하는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가치판단의 문제가 언제나 수사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에서 수사학적 접근은 어떠한 의미나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과 수사학의 상관성을 논의하려는 것이다.⁷⁾ 우선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가치판단의 문제를 고려할 경우 문화 경제학이 어떠한 가능성이나 쟁점을 안게 되는지,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이 지닌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Ⅳ장에서는 맥클로스키의 수사학과 클래머의 수사학을 비교하면서 전자의 수용이 후자의 문화 경제학에 어떠한 특징이나 한계를 안게 되었는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이 글의 초점은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과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의 상관성에 있으므로, 두 사람에 대해 종종 제

제적 제국주의'(economic imperialism; Guiso, Sapienza and Zingales, 2006, pp.27-29)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5) 맥클로스키의 첫 번째 이름의 약자인 'D'는 1985년을 기점으로 'Donald'에서 'Deirdre'로 전환되었다(Ziliak, 2001, p. x).

6) 여기에는 쿤(Kuhn) 이후 "과학이 독자적인 진리영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화방식(a way of talking)이라는 생각이 과학계에서 일반화되었다"(McCloskey, 1998a, p. 21)는 맥클로스키의 판단이 놓여 있다.

7) 클래머의 수사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임상오, 2009)가 있지만, 이 연구는 클래머 관점을 주로 러스킨(Ruskin)과 연결해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차이가 있다.

기되는 철학적 쟁점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⁸⁾

II. 가치판단과 문화 경제학⁹⁾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과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치판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영역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문화가 대표적이다. 문화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든 지간에 가치판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법칙으로 환원되기 힘든 다양성을 내포한다. 경제학과 문화(혹은 예술) 사이에 ‘본질적인 긴장’(essential tension) 관계가 존재한다(Van den Braembussche, 1996, p. 32) 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예술과 문화는 일반경제 내부에서 작동되는 개인과 기관에 의해 생산되므로 물질세계라는 제약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Heilbrun and Cray, 2001, p. 3)이므로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물질세계라는 제약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접근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나 예술 영역은 물질세계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경제학적 접근이 허용되는 부분만큼이나 가치판단 때문에 이 접근이 허용되기 힘든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면서 문화에 접근할 경우, 그 결과는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문화 경제학은 경제학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범주일지 모른다. 가치중립성이라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문화 영역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 경제학이 문화의 물질적·경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로 그 범위를 제한할 경우, 가치중립성이라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경제학이 의미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문화나 예술의 가치가 시장가격으로 환원되는, 그래서 문화적 가치는 있지만 시장화 되기 힘들거나 경제적 가치를 확보

8) 클래머와 맥클로스키에 관한 연구는 각각 이상호(2009)와 박만섭(2001)이 있으며, 전자가 주로 클래머와 트로스비를 비교한다면, 박만섭(2001)은 주로 맥클로스키의 철학적 한계를 비판한다. 이 글은 문화 경제학과 수사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클래머와 맥클로스키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9) 이 장은 이상호(2009) 3절의 내용을 상당부분 참조하고 있다.

10) 문화와 관련된 시장은 가격변화가 쉽게 추적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며, 효율적으로 작동되지도 않는다(Pesando, 1993).

하기 힘든 문화적 재화나 예술품이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 경제학은 의도와 달리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문화의 특성이 고려될수록 경제학의 과학성 기준이 문제되거나, 반대로 후자가 강조될수록 전자가 사라지거나 무시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논리적으로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문화 부문에서만은) 경제학의 과학성 기준을 완화해서 가치판단이 허용되는 쪽으로 경제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그 하나라면, 경제학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화 경제학의 범위를 문화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연구로 제한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이다.

윤리학과 공학이 경제학의 두 뿌리라는 센의 판단이 맞다면,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방법은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복귀하려는 시도에 해당된다. 더구나 이 시도는 경제학의 설명력을 높여주는 것일 수 있는데, 인간의 경제행위가 종종 가치판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en, 1999, pp. 17-27). 그렇지만 과학을 강조하는 경제학이 가치판단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문화 경제학은 가치중립성 기준을 유지하면서 문화의 경제적 조건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몰·보웬의 1966년 저작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한 사례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경제학으로 설명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판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가치중립적인 기준으로 설명하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몰·보웬의 1966년 저작¹¹⁾은 주로 공연예술(performing art)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경제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이 책의 목적은 공연예술가 집단의 금융문제를 설명하고 이 문제가 예술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Baumol and Bowen, 1966, p. 4).¹²⁾ 여기서 문화산업(특히 공연예술산업)은 ‘보몰의 비용압박’(Baumol’s cost disease)과

11) 이 책의 제목은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이다. 최근 국내에도 번역본(임상오 역,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 서울: 해남, 2011)이 출간되었다.

12) 그래서 이 책은 문화 혹은 예술의 가치판단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공연예술 조직의 경제적 측면을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池上惇·植木浩·福原義春, 1999, p. 279).

혼합재(mixed commodity)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공적 지원은 후자를 통해 정당화된다.¹³⁾

이들이 문화산업을 혼합재로 정의하는 이유는 문화적 재화가 사적 재화이자 공공재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여기서 사적 재화는 정부 지원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후자의 근거는 공공재 문제로 집약된다(Besharov, 2005, p. 415). 경제학에서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문화의 경제적 조건을 처음으로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조건을 경제학의 틀에 입각해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개척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경제학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성공했을 뿐, 어떠한 정책이 좀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문화나 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이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술과 문화에 관한 후생 경제학을 좀 더 일반적으로 구성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체계적인 저작이 존재하지 않는다”(Baumol, 2003, p. 30)고 아쉬워하기도 한다. 여기서 ‘체계적인 저작’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은 1966년 저작에서 “교양 교육(liberal education)이 공동체에 간접적이면서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편익을 제공한다면, 이는 예술의 경우에도 틀림없이 똑같이 적용된다”(Baumol and Bowen, 1966, p. 385)고 말했다는 점에서,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문화의 특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특성이 ‘체계적인’ 문화 경제학에 포함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쩌면 이들은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문화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격으로 환산가능한 영역(즉, 문화의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만 문화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든지

13) 보몰에 따르면, 문화산업(특히 공연예술산업)은 자본장비율이 낮고 제품이나 생산과정의 표준화도 쉽지 않으며, 노동력 투입 자체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특징까지 갖고 있으므로 제조업처럼 노동 생산성을 상승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기가 쉽지 않다(Baumol, 1967). 그래서 문화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비용압박’에 직면할 수 있으며, 산출물 가격 또한 제조업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Baumol and Bowen, 1965, pp. 499-502; 1966, pp. 167-172). 이러한 ‘비용압박’은 문화와 관련된 조직이나 기업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지만, 상당부분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부지원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Heilbrun, 2003, p. 100). 그래서 보몰·보웬은 정부지원의 주요 근거를 문화산업의 또 다른 특성인 혼합재에서 찾는다(Baumol and Bowen, 1966, pp. 380-382).

간에, 이들의 1966년 저작은 문화 경제학을 체계화하는데 문화의 특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라는 과제를 (암묵적으로나마) 남겼다고 판단된다.

이후 문화 경제학의 발전과정은 보몰·보웬의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후터에 따르면, 오늘날 문화 경제학의 주요 쟁점은 크게 (예술 분야와 비예술 분야 간) 생산성 차이, (문화나 예술 분야의) 공공재 특성, 문화적 선호의 특성, (문화나 예술 관련 투자의) 장기 수익률, 기술혁신의 영향, 예술적 가치평가의 자율성 등 6가지로 구분된다(Hutter, 1996). 여기서 생산성 차이, 장기수익율, 기술 혁신의 영향은 ‘보몰의 비용압박’과 관련된 논쟁¹⁴⁾에서 제기된 쟁점들이며, 공공재 특성은 보몰·보웬의 1966년 저작에서 공적 지원의 근거로 제시된 사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선호의 특성이나 예술적 가치의 자율성이라는 쟁점이 이 저작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두 쟁점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재화에 대한 수요나 그 가치를 보통의 재화나 상품처럼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시장가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되며(앞의 글, pp. 265-267), 이것은 다시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문화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환원된다. 결과적으로 문화 경제학의 주요 쟁점은 모두 보몰·보웬의 1966년 저작에서 직·간접적으로 비롯된 사안인 셈이다.

그렇지만 문화 경제학자들이 보몰과 보웬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특히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문화의 특성에 관한 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 경제학자들은 문화나 예술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문화적 재화에 대한 선호가 다른 재화와 달리 가치판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이 영향 또한 가격에 반영될 것이므로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문화나 예술과 관련된 경제행위도 가격이나 소득의 변화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tigler and Becker, 1977). 여기서 문화는 경제학의 가치중립적 기준에 비추어 평가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또 다른 상품에 불과하며, 문화와 경제학의 차이는 더 이상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예술의 경우 결정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이 아니라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나 판매용으로 예술품을 생산하려는 의도……이면에 놓여 있는 구조를 구분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의 규칙성이 분명할 경우, 예술의 수요·공급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언제나 타당”(Frey and Pommerehne, 1997, p. 6) 하

14) 이 논쟁에 대해서는, Throsby, 1994, pp. 15-16; Heilbrun, 2003, p. 99 참조.

다.

물론 문화 경제학자들은 문화적 재화나 예술품의 수요·공급에 경제학을 적용할 뿐 문화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평가할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Frey, 1994, p. 5-7). 그렇지만 이들의 접근방법에서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문화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들은 경제학을 문화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심지어 경제학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합리적 선택 모델을 물질적인 제약조건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간행위의 모든 영역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사회과학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Frey and Pommerehne, 1997, p. 4-5). 문화적 재화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언제나 의미없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것이 문화나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문화와 경제의 차이 혹은 이질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무시할 경우, 문화적 가치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평가받기 힘든 문화나 예술이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평가할 의도가 없다’는 말로 충분히 변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결국 보몰·보웬의 1966년 저작에서 비롯된 문화 경제학은 문화의 경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로 출발했지만, 이후 점차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까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된다.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문화의 특성이 점차 무시되거나 심지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점만큼이나 단점을 지닌 것일 수 있다. 문화와 경제의 이질성이 간과될 경우, 문화 경제학은 경제학의 과학성 기준을 충족하는 대신 문화의 중요한 특성을 놓치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화 영역에서 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영역에 기존 경제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쉽게도 이러한 노력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Ⅲ.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과 수사학

클래머는 가치판단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경제학과 문화의 결합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는 기존의 (문화)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경제학은 가치평가를 상품의 가격이나 이러한

가격형성과정으로만 이해할 뿐, 시장 교환 외부에서 발생하는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림과 공연을 상품으로, 이것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각각 환원”(Klamer, 1996, p. 19) 해서 평가한다. 문화와 경제의 상관성을 문제삼는 경우에도, 문화는 경제행위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만 취급될 뿐, 문화의 독자적인 특성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가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문화를 설명하기 힘들며, 그래서 새로운 문화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Klamer, 2007a, pp. 9-10).

그렇다고 해서 클래머가 문화적 재화나 예술품이 실제로 거래되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문화와 경제의 상관성을 인정하더라도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즉 시장가격)를 구별해야만 문화 경제학의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할 뿐이다(Klamer, 2003b, p. 209). 그는 문화가 가치판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가치판단 또한 사회적이거나 도덕적인 가치나 문화적 다양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¹⁵⁾ 그래서 그는 문화의 가치가 “(시장의/인용자) 측정을 넘어 존재하는 것이며 화폐형태로 환원되지도 않는다”(Klamer, 1996, p. 25) 고 본다.¹⁶⁾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에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구분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문화 경제학이 가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문화적 가치(즉,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또는 도덕적인 가치)를 배제한 채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조차 시장가격으로 설명한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학이 처음부터 이러한 접근방법을 선택했던 것은 아니다. 고전과 경제학자들은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또는 도덕적인 가치를 경제학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상업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신중(prudence)과 같은 도덕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스미스(Smith)가 대표적이다. 그는 신고전과 경제학이 등장한 후 실증주의가 강조되면서 이러한 가치가 경제

15) 그는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가 사회적·도덕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또는 도덕적인 가치’(social, cultural or moral value)로 표현하기도 한다.

16) 클래머는 칸트의 보편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듀이(Dewey)와 로티(Rorty)의 실용주의(pragmatism)적 가치관을 수용한다. 그가 보기에, 실용주의는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작동되는 방식에 주목하며, 그래서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구분하지 않는다(Klamer, 2003b). 그렇지만 실용주의자들(특히 로티)은 가치와 사실의 이분법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은 비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실용주의를 수용하는 철학적 오류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Stuhr, 2003, pp. 214-215),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학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다가 1930~40년대 형식주의 혁명(fomalist revolution)을 통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설명한다(Klamer, 2003b, pp. 193-195).¹⁷⁾

클래머는 이러한 변화를 경제학 방법론과 연결시킨다. 그에 따르면, 경제학 방법론은 크게 ‘가치의 길’(road of value)과 ‘선택의 길’(road of choice)로 구분된다. 전자가 고전과 경제학자들처럼 경제학에 사회적·문화적·도덕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재화(문화적 재화나 예술품까지)의 시장가격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산물로만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문화 경제학이 ‘가치의 길’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앞의 글, p. 199, p. 209). 이는 곧 그의 문화 경제학이 1930~40년대 이후 완벽하게 배제된 고전과 전통, 즉 ‘가치의 길’을 복원하려는 시도임을 시사한다.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은 고전과 전통을 복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또는 도덕적인 가치가 허용될 경우, 문화나 예술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과 다르다.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개입으로 하나의 가격이 쉽게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화적 재화나 예술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생산자, 소유자, 소비자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conversation)와 설득(persuasion)이 진행된다. 여기서 대화와 설득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가격 협상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이거나 도덕적인, 또는 미학적인 가치판단까지 전제한다. 그래서 그는 문화 경제학의 특성이 수사학적 차이(rhetoric differences)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Klamer, 2007a, pp. 5-6).¹⁸⁾ 그

17) 여기서 그는 히스(Hicks, Value and Capital, 1939), 사무엘슨(Samuelson,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7), 드브뢰(Debreu, Theory of Value, 1959)의 저작을 1930~40년대 ‘형식주의 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다(Klamer, 2003b, p. 195). 그런데 ‘형식주의 혁명’은 일반적으로 벤자민 워드(Benjamin Ward, *What's Wrong with Economics*, 1972)에게서 비롯된 것으로서, 1950년대 이후 신고전파 경제학이 경제학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실증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수리경제학 모델로 방법론의 일원화, 가치판단 배제 등—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Blaug, 2003). 그렇다면 클래머는 이 용어를 일반적인 용법과 비슷하게 이해하면서도 그 시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셈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는 듯 보인다.

18) 그가 예술품의 거래를 선물교환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위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는 이 거래가 대부분 후원제도(sponsoring)와 연결되어 있으며, 후자는 다시 개인 간 신뢰, 즉 상호성을 전제한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 그는 이러한 거래방식이 종종 연결관계(connection)에 따른 부작용을 유발하지만, 시장에서 재생산되기 힘든 문화나 예술의 가치를 존속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Klamer, 2003a, pp. 243-247).

렇다고 해서 그의 문화 경제학에서 수사학적 접근과 가치의 길이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는 모두 가치판단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전제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동전의 양면에 속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클래머가 수사학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비판 대상을 문화 경제학에서 경제학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문화적 재화의 거래만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거래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필요로 하며, 기업조직 또한 예외가 아니다. 기업 내부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이 진행되며, 그 결과가 독특한 기업문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경제학은 행위자가 고립적으로 계산하고 침묵 속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시장이나 기업조직 내부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대화를 무시하며, 행위자의 선호가 주어졌다고 가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설득을 통해 구매의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앞의 글, pp. 7-9). 이는 곧 기존의 경제학이 대화와 설득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현실세계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그는 경제학을 대화와 설득의 맥락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Klamer, 2007b, pp. xiii-xiv).

이렇게 클래머는 문화 경제학을 경제학 전반에 대한 대안으로 확대하면서도, 가치판단에서 비롯된 문화와 경제(학)의 차이 혹은 이질성을 여전히 전제한다. 그가 강조하는 대화나 수사학 또한 궁극적으로 가치판단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문화 경제학은 기존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기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가치판단의 다양성을 경제학 전반으로 확대·적용하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의미없는 것도 아니다. 쉐의 지적처럼, 경제학의 잃어버린 전통을 화복하는 시도이자 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가치판단을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은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구분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문화는 경제적 가치로 설명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문화 개념은 그가 가치평가 영역을 시장, 국가, 오이코스(oikos), 사회로 구분하는 과정에도 확인된다. 여기서 그는 기존의 경제학이 중시하는 시장이나 국가와 달리, 오이코스과 사회에서는 가치평가가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진행된다고 본다(Klamer, 2007a, pp. 17-26).¹⁹⁾ 그가 자본을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

화 자본으로 구분하는 경우에서도 이러한 문화 개념이 잘 드러난다. 여기서 경제적 자본이 경제적 소득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면,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은 각각 사회적 가치(우정, 집단성, 진실, 존경, 책임성 등)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기 때문이다(Klamer, 2002, pp. 465-468).

그렇지만 클래머가 모든 경제행위를 대화와 설득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상황에서는 문화가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문화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가치, 역사로서,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시켜주는 요인이다(Klamer, 2007a, pp. 10-11). 그는 이러한 문화가 배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과정에서 대화와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또한 그는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즉 가격)가 결정되는 데 대화나 설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에게 문화는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가치관과 같은 것이기도 한 셈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문화 개념, 즉 ‘좁은 의미의 문화나 예술 영역’과 ‘배후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가치관’을 각각 협의와 광의로 정의할 수 있다면, 클래머가 가치판단을 확대·적용하는 과정은 문화 개념의 이동(협의→광의)을 내포한다. 그가 기존의 문화 경제학을 비판할 때는 협의의 문화 개념이 전제되지만, 경제학 전체를 비판할 때는 광의의 문화 개념이 전제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의 문화 경제학은 협의의 문화 개념을 적용할 경우 ‘선택의 길’에서 벗어나 ‘가치의 길’로 복귀하는 것이 되지만, 광의의 문화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는 후자(가치의 길) 관점에서 전자(선택의 길)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성이 단순히 사고의 변화나 주요 관심의 이동(문화 경제학→수사학)을 보여주는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에 ‘문화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²⁰⁾에서도, 그는 두 종류의 문화 개념을 동시에 보여준다.

19) 그는 여기서 오이코스(가족에서부터 부족 공동체까지)와 사회를 다시 구분하면서, 전자에서는 공동의 역사나 기억, 혹은 문화를 통해 형성된 연결망(connectedness)이 가치평가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후자에서는 구성원 내부의 상호작용, 즉 상호성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문화적 가치평가에 관한 한 오이코스보다 사회-특히 ‘제 3부문’(third sector)-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제 3부문을 선물 교환 영역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정신적, 신성한, 상징적, 미학적, 예술적 함의를 갖는 것”(앞의 글, p. 13)이라는 정의와 “한 집단의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가치, 역사, 관심사(current news)를 지칭한다”(앞의 글, p. 10)는 정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그가 동일한 개념을 서로 다른 의미로 혼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문화 경제학은 협의의 문화 개념을 적용할 경우 (적어도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광의의 문화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비판대상과 정반대 편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²¹⁾ 후자의 경우, 시장 가격은 문화적 현상으로서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추론이 틀리지 않았다면, 클래머는 가치중립적인 문화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화 경제학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대화와 설득을 강조하면서 두가지 서로 다른 문화 개념을 혼용하거나 자신의 비판대상과 정반대의 환원론을 보여주는 한계를 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학은 그의 문화 경제학을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오류나 한계를 야기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IV. 맥클로스키의 수사학과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에서 수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특히 그가 광의의 문화 개념에 기초해서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기준을 비판하는 과정은 상당부분 대화와 설득의 수사학의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맥클로스키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는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을 만나면서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을 감행했기 때문이다(Klamer, 2001, pp. 69-73).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일방적인 수용 관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클래머가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을 수용했지

20) 정확한 제목은 “Cultural Economics: The Shock of the New”(『문화경제연구』, 10권 1호, pp. 3-30)이다.

21) 클래머가 기존의 경제학에 대해 모든 경제행위를 시장가격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보인다고 비판했다면, 그의 문화 경제학은 모든 경제행위를 광의의 문화 개념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만 점차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으며, 때로는 두 사람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도 했다(McCloskey and Klammer, 1995). 그 결과, 오늘날 두 사람은 너무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²²⁾

맥클로스키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공식적인(official) 것과 비공식적인(unofficial) 것으로 구분한다. 전자가 경제학자들이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과학적 방법론(즉 모더니즘)이라면, 후자는 경제학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방법론 때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unexamined) 부정되어야 하는 것(즉 수사학)을 지칭한다(McCloskey, 1983). 그는 모더니즘을 논리실증주의, 행태주의, 조작주의(operationalism), 가설-연역적 모델(hypothetico-deductive model)의 결합물로 정의하지만(앞의 글, p. 484), 이것을 비판하는 과정은 주로 논리실증주의와 포퍼의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 기준에 집중된다. 이는 곧 그의 모더니즘 정의의 핵심이 논리실증주의와 반증가능성 기준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그의 비판은 논리실증주의나 반증가능성 기준 자체의 철학적 한계보다 그 이면에 놓인 사고방식이나 문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그의 주요 관심이 수사학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²³⁾

맥클로스키에 따르면, 모더니즘은 이미 철학적 타당성을 잃어버린 논리실증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학의 모더니스트들이 과학적 추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반증가능성 기준 또한 이미 부정된 상태이다. 또한 모더니즘은 과학의 특징을 예측(prediction)에서 찾으며 경제학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아가 모더니즘은 형이상학이나 도덕, 또는 개인적 확신에서 자유로운 지식(즉, 과학적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그 방법론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그대로 따를 경우 유용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 결과, 실제 경제학의 역사는 모더니즘에 위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케인즈의 통찰은 1950년대

22) 물론 논의의 출발점은 조금 다르다. 클래머가 문화와 경제(학)의 차이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맥클로스키는 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며, 클래머가 문화 경제학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주로 관심이 있다면 맥클로스키는 수사학에 비추어 경제학 방법론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23) 그는 『경제학의 수사학』(The Rhetoric of Economics) 2판(1998년) 서문에서 초판(1985년)의 모더니즘 비판이 주로 철학적으로 논쟁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철학이 아닌 수사학에 비판이 초점이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에서 찾았다(McCloskey, 1998a, pp. xi-xii).

까지 통계적 명제로 정립된 것이 없으며, 1960년대 초반에는 유동성 함정이나 투자의 가속도 모델이 통계적 검증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도들에게 계속해서 과학적 진리로 교육되었다(McCloskey, 1983, pp. 486-491; 1998a, pp. 148-150).

이와 같이 모더니즘이 철학적 근거가 약하거나 근본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만으로는 경제학이 존립할 수는 없다. 맥클로스키가 비공식적인 방법론인 수사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모더니즘이 아니라 수사학이 경제학의 실제 추론과정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학이 경제학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모더니즘에 의해 은폐되거나 배제된다는 점이다.²⁴⁾ 그래서 그는 이러한 수사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경제학을 비판함과 동시에 경제학을 대화와 설득이라는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McCloskey, 1994, pp. 367-378).

맥클로스키는 경제학에서 대화가 메타경제학적 위계구조(meta-economical hierarchy)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조는 다시 상층, 중간층, 하층로 구분된다고 본다. 하층은 경제학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method)으로, 경제학자들이 흔히 도구상자로 부르는 것이나 이들의 일상작업용 수사(workday rhetoric)가 여기에 해당된다. 상층은 대화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규칙으로, 하버마스의 대화윤리(Sprachethik)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간부는 공식적인 방법론(Methodology)으로, 모더니즘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방법론은 특수한 과학으로부터 과학 일반에 이르는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방법(method)처럼 경제학자들에게 실제로 유용한 조언이라는 제공하지도, 대화윤리처럼 좋은 대화 방법을 제공하지도 못한다(McCloskey, 1998a, pp. 159-162). 이렇게 볼 경우, 경제학의 대화는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과 대화윤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맥클로스키에 따르면, 수사학은 주로 메타경제학적 위계구조의 하층, 즉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이 방법은 ‘일상적인 수사’나 ‘도구상자’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후자 또한 메타포와 같은 수사학적 장치가 없다면 작동되지 않는다.²⁵⁾ 그래서 그는 이러한 수사학적 장치가 경제학적 추론의 본질을 구성한다

24) 예를 들어, 계량경제학은 공식적으로 과학적인 실증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제 이론이나 정책, 혹은 심리 작용으로부터 가설을 도출하고 이것을 다시 모형화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McCloskey, 1983, pp. 493-495).

25) 맥클로스키는 사실, 논리, 이야기, 메타포를 경제학의 수사학을 구성하는 4원소(Tetrad)로

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학의 메타포는 경제학의 수사학을 위해 중요한 것이므로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 어떤 경제학자도 메타포나 거대한 비유(master trope) 없이 말할 수 없다”(McCloskey, 1998a, p. 51). 이러한 수사학은 경제학적 추론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물론 여기서 추론의 타당성은 공식적인 방법론이 전제하는 과학적 타당성이 아니라 설득의 타당성이다.

맥클로스키는 자신의 수사학적 접근에서 이러한 타당성 기준이 하버마스의 ‘대화 윤리’와 폴라니(Polanyi)의 ‘대화의 중복’(overlapping conversations)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고 믿는다(앞의 책, pp. 163). 한 집단에서 대화윤리를 지키면서 좋은 대화가 유지될 경우 대화의 중복을 매개로 다른 집단에게도 좋은 대화를 위한 기준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확산될 경우 학계 전체가 공유하는 설득의 타당성 기준이 확보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McCloskey, 1994, pp. 100-101). 그래서 그는 “탐구의 논리가 아니라 대화의 수사학이 과학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McCloskey, 1998a, p. 109)고 주장한다.

수사학이 과학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경우, 그 과학은 더 이상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대화 과정에 윤리나 도덕, 또는 문화와 같은 가치판단 요인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맥클로스키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대화 윤리’와 ‘대화의 중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설득의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는 보편타당한 지식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²⁶⁾ 이는 역으로 그의 수사학적 접근이 가치중립성 기준을 강조하는 기존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자 이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배제되었던 가치판단 요인을 경제학에 도입하려는 시도임을 시사한다(McCloskey, 1996, p. 189, pp. 197-198).

클래머와 마찬가지로, 맥클로스키도 경제학이 처음부터 가치중립성을 강조했다고 보지 않는다. 고전과 경제학의 경우, 그는 수사학이나 가치판단을 분명하게 인

정의한다(McCloskey, 1998a, p. 19). 그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모델이나 그래프를 메타포로 이해하며, 심지어 시장을 수요·공급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메타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McCloskey, 1983, pp. 502-507).

26) 맥클로스키는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 좋은 수사학과 나쁜 수사학을 구분하지만, 그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Caldwell and Coats, 1984, pp. 576-577). 그래서 그는 종종 상대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대화 윤리’와 대화의 중복’이다(박만섭, 2001).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은 철학적으로 서로 상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가 상대주의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정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스미스는 부르조아 사회의 미덕(virtue)²⁷⁾을 정의했으며, 『국부론』에서 분업을 ‘교환 성향의 산물’로 설명할 정도로 수사학을 중시했다.²⁸⁾ 그래서 그는 스미스의 인간관을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자신의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인간’(Seeking Man), 즉 ‘호모 페텐스’(Homo petens)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인간’(Speaking Man), 즉 ‘호모 로퀴스’(Homo loquans)로 정의한다. 그가 보기에, 전자의 인간관은 스미스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미덕(virtue)을 최적화 문제로 환원했던 공리주의 철학(특히 벤담)²⁹⁾에서 비롯된 것이며, 1940년대 이후 경제학을 지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940년대에 사뮤엘슨(*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7)를 통해 경제학이 조건부 최적화에 대한 추론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량 경제학이 출현하면서 통계적 자료만으로 설득력 있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경제학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McCloskey, 1998b, pp.313-314; 1998a, pp.35-38, pp.112-113).

이렇게 볼 때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적 접근은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잊혀지거나 배제된 고전과 전통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물론 성공한다면 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 양자의 공통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30-40년대를 기점으로 가치 중립성 기준이 경제학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가치판단 요인(윤리나 도덕, 문화 등)을 허용하는 수사학적 접근이 사라지거나 배제되었다는 판단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³⁰⁾ 다만 클래머가 ‘언어학적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맥클로스키는 ‘수사학적 전환’(rhetoric tur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McCloskey, 1994, pp.xiii), 클래머가 가치중립적인 경제학으로 전환되는

27) 그에 따르면, 스미스는 귀족의 미덕(신중, 절제, 정의, 용기)과 평민의 미덕(신앙, 희망, 사랑) 중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신앙과 희망을 뺀 5 가지 요인을 부르조아 사회의 미덕으로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절제, 신중, 정의를 중요한 미덕으로, 신중을 특히 더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다(McCloskey, 1998b, pp. 301-305).

28) 교환 과정은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포함한다.

29) 맥클로스키는 벤담이 효용(utility) 추구를 옳은 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면서 스미스의 신중 개념이 효용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경제학이 신중 만의 과학(the science of Prudence Alone)으로 발전하면서 탈도덕화(de-moralized)되었다고 주장한다(McCloskey, 1998b, pp.305-307).

30) 맥클로스키는 과학적 경제학이 지배하게 된 시점을 1940년대에서 찾지만, 이와 관련된 1930년대의 움직임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경제학의 수학적 말하기 방식이 “과학주의, 행태주의, 조작주의, 실증 경제학, 기타 1930년대에 수량화에 열광하는 태도(enthusiasms)”(McCloskey, 1998a, p.140)로 구성된 신념을 전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시점을 신고전과 경제학의 등장에서 찾는데 반해 맥클로스키는 공리주의 철학의 등장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맥클로스키와 클래머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장과 부르조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맥클로스키는 시장의 긍정성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시장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제공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 미덕(Bourgeois virtue)인 신중을 육성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그는 스미스의 ‘교환 성향’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을 끄집어내는데, 여기에는 시장의 교환이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설득을 가능케 한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³¹⁾ 그가 부르조아 미덕을 “간과되었던 경제와 문화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McCloskey, 1998b, p. 300)로 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클래머는 스미스가 신중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했다고 보면서도, 이 신중을 부르조아 미덕으로 정의하지도, 시장이나 부르조아의 긍정성을 옹호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여기에는 맥클로스키가 자신을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으로, 클래머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정의한 차이가 놓여 있는 듯 보인다(McCloskey, 1994, p. 343).

기존의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맥클로스키는 자신을 ‘자유지상주의자’로 정의했을 정도로 신고전파나 시카고 학파³²⁾의 합리적 선택 논리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앞의 책, pp. 355-358). 그렇지만 클래머는 ‘선택의 길’에서 벗어나 ‘가치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합리적 선택 논리의 장점이거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겠지만, 클래머가 맥클로스키에 비해 훨씬 더 급진적으로 기존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맥클로스키는 수사학적 접근의 필

31) “시장은 미덕을 위한 기회이자, 성(gender), 사회적 계급, 인종을 넘는 연대의 표현이다”(McCloskey, 2007, p. 4). 맥클로스키가 개인주의를 전제하면서도 연대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간과하지 않는다고 평가(Ziliak, 2001, p. xxiv)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시장관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요구된다.

32) 맥클로스키는 시카고 학파를 ‘새로운 시카고 학파’(nouvelle Chicago)와 ‘좋은 구시카고 학파’(Good Old Chicago)로 구분한다. 전자가 사무엘슨의 효용 극대화(나 기대효용 극대화)를 중시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극대화 가정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고자 한다’는 가정으로 완화한 것이다. 그는 후자에 속하는 인물로 숄츠(Schultz), 포겔(Fogel), 나이트(Knight), 뷰캐넌(Buchanan)을 거론하면서 자신도 여기에 속한다고 주장한다(McCloskey, 1994, p. 356).

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경제학의 장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가 경제학을 과학이자 문학으로 정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McCloskey, 1998a, p. 23).

그렇다면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적 접근은 경제학을 가치중립적인 영역(과학)과 그렇지 않은 영역(수사학)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그가 이러한 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가 기존 경제학에서 어떤 측면이 수용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도 거의 없다. 다만 그는 ‘방법론’을 부정하면서도 ‘방법’은 수용했다는 점에서, 후자를 수용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경제학에서 ‘방법론’과 ‘방법’의 구분이 (논리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가 과학과 수사학의 조화를 암묵적으로나마 추구했다는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클래머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맥클로스키는 클래머도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기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³³⁾ 이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클래머는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문화와 경제(학)을 구분하고 나서, 새로운 문화 경제학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문화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의 문화 경제학은 협의의 문화 개념일 경우 경제적 가치와 구분되는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것이 되지만, 광의의 문화 개념일 경우에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배후에 놓여 있는 공동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후자에서는 경제적 가치까지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되기 쉽다. 이는 곧 그가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적 접근을 수용해서 문화 개념을 확대했지만, 과학과 수사학의 조화라는 맥클로스키의 암묵적인 목표는 수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그가 광의의 문화 개념을 적용할 경우 (협의의 문화 개념에 기초한) 자신의 출발점(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구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역설 혹은 자기모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역설 혹은 자기모순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클래머는 맥클로스키와 수사학 개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듯 보인다. 맥클로스키는 학계 내부에 대화의 소통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대화윤리’와 ‘대화의 중복’의 효과에

33) “클래머(Klamer), 와인트롭(Weintraub), 필자처럼 경제학을 수사학으로 이해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언어나 수학의 포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상대방과 세계를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McCloskey, 1994, pp. xv).

대한 믿음이 놓여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당신은 이웃 분야의 대화에 대해 자신의 분야 만큼이나 거의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심사진(research panels), 편집위원회, 교수 종신임용 심의위원회(tenure committees)는 여기에 의존한다”(McCloskey, 1994, p.100). 이러한 판단이나 주장이 철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³⁴⁾ 그렇다고 해도 맥클로스키가 소통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장치(‘대화윤리’나 ‘대화의 중복’)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클래머는 대화 과정에 내포된 정치성과 권력관계를 중시한다. 그는 대화가 개인적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이기도 하며, 때로는 전자보다 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최적화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맥클로스키와 달리, 사회구조나 권력관계와 같은 개인 이상의 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며 경제학자들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도 소통가능성보다 갈등가능성을 중시하고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Frobert, 2004, p.31; McCloskey, 1994, pp.348-355, p.362). 그가 경제학계에 대해 소수의 연구성과 만이 과도하게 주목받는 승자독식의 구조, 그래서 쓰레기를 경쟁적으로 양산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van Dalen and Klammer, 2005), 이러한 구조에서는 설득의 타당성보다 사회정치적 권력관계나 이데올로기에 따른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쉽다. 그가 수사학을 수용하면서 가치판단의 다양성이나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클래머는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을 수용해서 문화 개념을 확대했지만, 수사학을 다르게 정의했기 때문에 후자와 다른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수용과정은 언제나 부분적인 변형이나 수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 경제학을 ‘구성’하려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이 의도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그의 수사학에는 갈등가능성을 드러내는 장치만 존재할 뿐, (맥클로스키가 제시한) ‘대화윤리’나 ‘대화의 중복’처럼 설득의 타당성이나 소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보편적인 추론에 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34)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은 로티의 자민족중심적(ethnocentric) 진리·윤리관과 하버마스의 대화윤리에 내포된 보편주의적 진리·윤리관이 서로 충돌하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의심의 대상이다(박만섭, 2001).

어쩌면 그가 과학과 수사학의 조화라는 맥클로스키의 암묵적인 목표를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니 결과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구분이라는 자신의 출발점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역설 혹은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된 이유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V. 평가 및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클래머는 문화와 경제(학)의 차이 혹은 이질성에 기초해서 새로운 문화 경제학을 모색한다. 이것은 가치판단 문제를 고려할 경우 문화 경제학이 직면하기 쉬운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그는 수사학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협의와 광의의 문화 개념을 혼용하거나 자신의 비판대상과 정반대의 환원론을 보여주는 한계를 안게 된 듯 보인다. 이는 곧 수사학이 그의 문화 경제학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안기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가 모두 수사학을 수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클래머는 맥클로스키의 수사학적 접근을 수용하면서 문화 개념을 확대했지만, 과학과 수사학의 조화라는 후자의 암묵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광의의 문화 개념이 협의의 문화 개념에 기초한 자신의 출발점을 부정하는 역설 혹은 자기모순에 직면했는데, 여기에는 맥클로스키의 수사학과 클래머의 수사학의 차이가 놓여 있다. 소통가능성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장치 또한 존재하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갈등가능성을 중시하며 소통가능성을 위한 장치도 부재하다. 물론 수용의 특성상, 이러한 차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클래머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존의 (문화) 경제학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구성'하는데 있다면, 소통가능성을 위한 장치는 갈등가능성을 폭로하는 장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소통가능성이 존재해야만 대화와 설득을 통한 추론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사학적 접근을 수용하더라도 소통가능성을 위한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의 논리적·현실적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클래머의 한계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문화 경제학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는 수사학을 주로 정치적·이데올로기

적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통가능성이 확보되기도 힘들지만 설령 확보된다고 해도, 그것은 학계 전체로 확산가능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가 동일한 집단에 국한된 것이기 쉽다.

결과적으로 클래머의 문화 경제학은 수사학적 접근을 수용함으로써 장점보다 더 많은 단점을 안게 된 듯 보인다. 물론 그가 수사학을 맥클로스키와 동일한 의미로 수용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와 함께 그가 문화 개념을 협의로 사용함으로써 문화와 경제(학)의 이질성이라는 자신의 출발점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과학과 수사학의 조화라는 목표에서도 맥클로스키와 비슷했을지 모른다.³⁵⁾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든지간에, 클래머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가치판단을 허용하면서 문화 경제학을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한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의 문화 경제학은 기존 경제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서 새롭게 문화 경제학을 구성하고자 할 때, 가치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며 수사학이 얼마나 유용한 분석장치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1. 박만섭, “수사학적 경제학 방법론: 비판적 고찰,” 『과학철학』, 6, 2001, pp.119-154.
(Translated in English) Park, Man-Seop, “Rhetorical Approach to Methodology of Economics: A Critical Examination,” *Korean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6, 2001, pp. 119-154.
2. 이상호, “문화 경제학의 쟁점과 가능성: 트로스비와 클래머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6호, 2009, pp.176-204.
(Translated in English) Lee, Sang-Ho, “The Issues in Cultural Economics and its

35) 그렇다고 해도, 맥클로스키의 ‘대화윤리’나 ‘대화의 중복’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문화 경제학의 ‘구성’이라는 목표에도 충분히 부합되는 장치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Possibility,”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No. 76, 2009, pp.176-204.
3. 임상오, “문화 경제학의 수사학적 접근,” 『문화경제연구』, 12권 1호, 2009, pp.3-24.
(Translated in English) Lim, Sang-Oh, “Rhetorical Approach to Cultural Economics,” *Review of Cultural Economics*, Vol. 12, No. 1, 2009, pp.3-24.
4. 池上惇・植木浩・福原義春, 『文化經濟學』, 황현탁 역, 『문화 경제학』, 나남출판, 1999.
(Translated in English) Ikegami Jun et al., *Cultural Economics*, Korean translation by H. Whang, Seoul: Nanam, 1999.
5. Baumol, W.J. and W.G. Bowen, “On the Performing Arts: The Anatomy of their Economic Problem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5, Issue 2. 1965, pp.495-502.
6. _____,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66.
7. _____,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No. 3. 1967, pp.415-426.
8. _____, “Applied Welfare Economics”; in R. Towse(ed),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Edward Elgar, 2003.
9. Besharov, G., “The Outbreak of the Cost Disease; Baumol and Bowen’s Founding of Cultural Economic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37, No. 3, 2005, pp.413-431.
10. Blaug, M., “Introduction: What is the Economics of the Arts About?,” M. Blaug(ed.), *The Economics of the Arts*, Gregg Revivals, 1992.
11. _____, “The Formalist Revolution of the 1950s,”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25, No. 2, pp.145-156.
12. van den Braembussche, A., “The Value of Art-A Philosophical Perspective”; in A. Klammer (ed.), *The Value of Culture*, Amsterdam Univ., 1996.
13. Caldwell, B.J. and A.W. Coats, “The Rhetoric of Economists: A Comment on McClosk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II, 1984, pp.575-578.
14. Cuccia, T., “Contingent valuation”; in R. Towse(ed),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Edward Elgar, 2003.
15. van Dalen, H.P. and A. Klammer, “Is Science A Case of Wasteful Competition?,” *Kyklos*, Vol. 58, No. 3, 2005, pp.395-414.
16. Frey, B.S., “Art: The Economic Point of View”; in A. Peacock & I. Rizzo(eds.), *Cultural Economics and Cultural Polici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17. _____ and W.W. Pommerehne, “Art: The Economic Perspectives”; in R. Towse(ed.), *Cultural Economics*, Vol. I, Edward Elgar, 1997.
18. Frobert, L., “Si vous êtes si malins...”: *McCloskey et la rhétorique des sciences économiques*, ENS Editions, 2004.
19. Guiso, L., P. Sapienza and L. Zingales, “Does Culture Affect Economic Outcom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0, No. 2, 2006, pp.23-48.
20. Heilbrun, J. and C.M. Cray,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2nd ed., Cambridge Univ., 2001.
21. _____, “Baumol’s Cost Disease”; in R. Towse(ed), *A Handbook of Cultural*

- Economics*, Edward Elgar, 2003.
22. Hutter, M., "The Impact of Cultural Economics on Economic Theory,"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0, 1996, pp.263-268.
23. _____ and D. Throsby, "Value and Valuation in Art and Culture: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M. Hutter and D. Throsby(eds.), *Beyond Price*, Cambridge Univ., 2008.
24. Klamer, A., "The Value of Culture"; in A. Klamer(ed.), *The Value of Culture*, Amsterdam Univ., 1996.
25. _____, "Making Sense of Economists: From Falsification to Rhetoric and Beyond," *Journal of Economic Methodology*, Vol. 8, No. 1, 2001, pp.69-75.
26. _____, "Accounting for Social and Cultural Values," *De Economist*, Vol. 150, No. 4, 2002, pp.453-473.
27. _____, "Gift Economy,"; in R. Towse(ed.),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Edward Elgar, 2003a.
28. _____, "A Pragmatic View on Values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Methodology*, Vol. 10, No. 2, 2003b, pp.191-212.
29. _____, "Cultural Economics: The Shock of the New," *Review of Cultural Economics*, Vol. 10, No. 1, 2007a, pp.3-30.
30. _____, *Speaking of Economics*, Routledge, 2007b.
31. McCloskey, D., "The Rhetoric of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I, 1983, pp.481-517.
32. _____, *Knowledge and Persuasion in Economics*, Cambridge Univ., 1994.
33. _____ and A. Klamer, "One Quarter of GDP is Persua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No. 2, 1995, pp.191-195.
34. _____, "Missing Ethics in Economics"; in A. Klamer(ed.), *The Value of Culture*, Amsterdam Univ., 1996.
35. _____, *The Rhetoric of Economics*, 2nd ed. Univ. of Wisconsin, 1998a.
36. _____, "Bourgeois Virtue and the History of P and 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8, No. 2, 1998b, pp.297-317.
37. _____, *The Bourgeois Virtue*, The Univ. of Chicago, 2007.
38. Pesando, J.E., "Art as an Investment: The market for Modern Pri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3, No. 5, 1993, pp.1075-1089.
39. Sen, A.K. · 박순성 · 강신욱 역, 『윤리학과 경제학』, 한울, 1999.
(Translated in English) Sen, A. K., *On Ethics and Economics*, Korean Translation by S. Park and S. Kang, Seoul: Hanul, 1999.
40. Stigler, G.J. and G.S. Becker, "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No. 2, 1977, pp.76-90.
41. Stuhr, J.J., "Pragmatism about Values and the Valuable: Commentary on 'A Pragmatic View on Values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Methodology*, Vol. 10, No. 2, 2003, pp.213-221.

42. Thrift, N., "Performing Cultures in the New Economy"; in P. de Gay and M. Pryke(eds.), *Cultural Economy*, Sage Publications, 2002.
43. Throsby, D.,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Arts: A View of Cultur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II, 1994. pp.1-29.
44. _____, "On Conflicts and Synergies: Problems and Possibility in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s and Culture"; in J. Lears and J. Van Scherpenberg(eds.), *Cultures of Economy-Economics of Culture*, Universitäts verlag Winter GmbH, 2004.
45. Towse, R., "Alan peacock and Cultural Economics," *The Economic Journal*, Vol. 115, 2005, F262-F276.
46. Ziliak, S.T., "Introduction: D.N. McCloskey and the Rhetoric of a Scientific Economics"; S.T. Ziliak(ed.), *Measurement and Meaning in Economics: The Essential Deirdre McCloskey*, Edward Elgar, 2001.

Cultural Economics and Rhetoric: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A. Klammer and D. McCloskey

Sang Ho Lee*

Abstract

This Essay is to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economics and rhetoric, focusing on Klammer's and McCloskey's conception. Klammer started at the difference between culture and economy that was related to value judgement. But he expanded the meaning of culture in accepting the McCloskey's rhetoric. As a result he was confronted with the situation where two meanings of culture conflicted each other, and made an error opposite of his object of criticism. He did not accept the harmony of science and rhetoric from McCloskey and accepted differently the meaning of rhetoric. In his cultural economics, rhetoric thereby resulted in exposing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rather than constructing a new alternative theory.

Key Words: culture, value judgement, rhetoric, Klammer, McCloskey

Received: Feb. 25, 2011. Revised: March 23, 2011. Accepted: May 16, 2011.

* Lecturer, 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Phone: +82-2-3290-2200, e-mail: lsh0919@kornet.net